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창원 감농업 현장 방문

등록 2023.11.20 16:05:24



[진주=뉴시스]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경남방문.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0일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경남도 농경문화자원을 활용한 소득화 모델을 파악하기 위해 창원독외 감농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빗돌배기 마을은 단감 재배와 함께 ‘백년단감’이라는 주제로 농업 체험과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농경문화자원의 활용도를 높인 곳이다.

특히 단감재배의 역사성을 잘 개발해 농외소득을 증진했으며, 단감과 전통농법 등 농경문화자원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 지난 2022년 제17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날 조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빗돌배기마을 현장을 둘러보며 농경문화자원이 갖는 가치를 유지·보존하고, 계승시켜 발전해 나아갈 방안을 모색했다.

조 청장은 “농경문화자원이 갖는 가치를 유지·보존하고, 계승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유산으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찬식 경남도농업기술원장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남의 농경문화자원을 보전하고, 이를 활용해 경남의 경제성을 강화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